

시골장터의 인간적인 훈훈함이 살아 있는 서점풍경

독일 베를린 대학의 가판서점

박진희

베를린 공과대 학생



베를린대 가판서점은 싼 책을 구입하기에 안성맞춤이다(위). 구간서적의 경우 40~50%에 살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책값이 터무니 없이 비싼 독일에서(보급판의 경우 한국의 150~180% 수준, 전문서적일 경우는 어림잡아 200~300% 수준)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대학의 가판서점이다. 구간 서적이나 고서를 다루는 고서적상이 대학 주변, 이를테면 학생식당 앞이라든가 정문입구 등 목이 좋은 곳에 상설 가판대를 펴놓고 책을 판다. 구간 서적의 경우 원래 가격의 40~50%에 살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에게는 그나마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책과 파본이 전사

또한 가판서점은 싼 책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저곳 현책방을 헤집고 다니는 수고를

덜게 하여 학생들로서는 여간 이득이 아니다. 물론 일반 서점의 경우와는 달리 꼭 필요한 책 또는 당장 시급히 구입해야 할 책을 살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책 모으기가 취미도 아니고, 또 평소에 '어떤 책이 나와 있나' 보고 다니기에 너무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 가판서점이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부지런한 학생의 경우, 특히 독어 원서구입이 절박한 한국학생에게 가판서점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식당에서 점심 먹고 반 시간 정도 이리저리 뒤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적시에 요긴한 책을 발견할 수도 있다. 괴테가 "세상은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다는데, 비슷한 의미에서 세상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의 것인 가 보다.

가판서점에 진열된 책은 대충 두가지로 나뉜다. 사람들의 손을 거친 현책과 출판사를 통해 직접 들어오는 파본이 그것이다. 파본이라고 도장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점에서 안팔리고 오래 묵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파본은 원래 책가격의 반값으로 살 수 있고, 현책은 책의 상태에 따라, 이를테면 오래된 정도, 보관 상태, 파손된 정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파본인 경우에는 출판사와의 정확한 계약에 의해 공급되지만, 현책은 장사하는 사람의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공급된다.

분야 구애 없이 다양

진열된 책은 관광 안내 사진집에서부터 전문의학서에 이르기까지 분야에 구애됨 없이 다양하다. 베를린 자유대학에는 두곳의 가판서점이 있는데 한곳은 파본을, 다른 한곳은 현책을 취급하고 있어 전문화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분업화는 됐다. 이런 가판 서점의 대목은 역시 학생들로 북적대는 학기초다(4

월 중순과 10월 중순께). 그래서 가판서점도 학기초에는 개중 깨끗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작가의 책과 선집·전집 등을 집중적으로 내놓는다. 전집을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은 학생의 뻘한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거의 무망한 일인데(전집의 경우 가격은 정말 터무니 없을 정도로 비싸다) 재수가 좋으면 필요한 전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절기로 보아서는 겨울보다 여름에 장사가 잘되는 편이다. 숫적으로야 적지만 한국학생은 가판서점의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다. 한국학생이 독일학생과 비교해서 부자라라서 그런다기보다 한국대학과 독일대학의 도서관 시설과 문화영역에 대한 투자의 차이점으로 돌려질 수 있다. 이곳에

서는 엄청난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책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한국학생으로서 한국의 열악한 도서관 시설과 빈약한 장서량을 감안해 열심히 책을 사모을 수밖에 없다.

에누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가판서점 '안나와 페트야(비록 영세하기는 하지만 베를린 북쪽지역에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있다)의 경우, 연간 7~8만 마르크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안나와 페트야'의 여사장 안나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매출액이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그녀는 90년대 대학교육 개혁조치에 따른 학생수 감소, 경기에 따른(콜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에 근거한) 주머니 사정의 실질적인 어려움, 자유대학 본관건물에 소재해 있던 단과대학의 이전, 그리고 대학 초년생의 무관심, 컴퓨터 서적의 출현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국학생이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많이 구입했는데, 지금은 왜 구입하는 사람이 없냐고 되물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가판서점이기 때문에 절도 도난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마땅한 방책도 없다. 달리 목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처지에 도난방지를 위해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판서점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행정처의 관용하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경우 아무런 권리가 없다. 실제로 최근 베를린 공과대 주변의 가판서점이 대학행정당국의 요구에 따라 철수를 하기도 했다.

각박한 도시생활, 팍팍한 세태, 전문화, 특수화의 이념들이 침단을 달리고, 유일한 가치라고는 생존경쟁밖에 남지 않은 현대의 사막에 가판서점은 아직도 시골장터 같은 인간적인 훈훈함을 맛볼수 있는 곳이다. 정찰제의 나라 독일에서 가판서점은 밀고 당겨보고 하는 에누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옛날처럼 번잡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안나의 어두운 표정에서 인간사회에 소금처럼 있어야 할 그 훈훈함마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